
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강화

I.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 인력의 잦은 이직율로 인해 핵심인력양성 어려움 가중
 -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비율 상대적 저조
 - 중소기업 평균근속연수* : 4년(대기업 13년)
 - *사람인 리서치 발표('18.11.13)

II. 개선방안(또는 자체 정비내용)

- (완화규정)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” 지원기준 완화
 -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인원 확대('20.6.26)
 - 지원대상 범위 확대
 - (기존) 협력기업(50개사) → (개선) 협력기업 + 2차 협력기업(15개사)
 - 지원 인원 확대 : (기존) 2명 → (개선) 10명
 - 지원금액 : 100천원/월/인×60개월 = 6,000천원/인

III. 기대효과

- 협력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영세한 2차 협력기업 핵심인력의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유도
- 영세한 2차 협력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으로 경영안정 제고